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광재	신현석	양용택	09/12 김학진
협 조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061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2016.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피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 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 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 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하셨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input type="checkbox"/>	시민참여
전 문 자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하셨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발제 및 토론
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하셨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	
사 회 적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하셨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	
선 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하셨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하셨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하셨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하셨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	
바 른 우 리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하셨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input type="checkbox"/>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서울역에 대한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심포지엄 개요

- 일 시 : '16. 9. 1(목) 13:30 ~ 17:2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 참 석
 - 발 제 자 : (역사·문화분야) 경기대 안창모 교수,
(철도·교통분야)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부원장,
(도시계획분야) 서울대 최막중 교수
 - 토 론 자 : 한양대 구자훈 교수(좌장), 성균관대 윤인석 교수,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 (주)미래E&D 백운수 대표, 세종대 김영욱 교수, 한국철도공사 역세권개발처장,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장
 - 청 중 : 지역주민, 전문가, 학생 등 약 150여명

□ 분야별 발제내용

- 제1발제 : (역사·문화분야)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
 - 「남대문 밖 '도시와 건축'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역은 과거부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주요 경로의 관문역할을 수행
 - 과거 활성화되었던 서울역 서부가 지금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금번 논의를 서울 도심의 소외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7017프로젝트'와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서울역 동서를 연계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는 역사문화축 완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구)서울역사가 다시 서울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만큼 상징성과 역사성을 되살리기 위해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후면의 롯데마트는 철거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 제2발제 : (철도·교통분야)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부원장

- 「서울역 미래비전 : 철도·교통 통합을 중심으로」

- 서울역은 이용객이 동경역의 1/5로 저조하고, 환승거리는 200~500m에 달하며, 서울 주요지역에서 접근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이용이 불편함
- 서울~광명간 KTX 신선 건설(지하화), GTX-A, B노선 정차,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등 향후 중요한 여건변화가 예정되어, 서울역 위상이 강화될 것임
- 서울역의 철도·교통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체 노선을 원점에서 재배치하여 환승서비스 수준 C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
- 동서 연결 도로망 재정비, 서울역 지상공간 활용방안 모색, 수색~서울~광명간 KTX 신선 민자사업 추진, 철도역·터미널 환승연계 서비스 및 건설기준 정립 등의 정책을 제안

○ 제3발제 : (도시계획분야)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

- 「서울역 미래비전과 개발방향」

- 과거에는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이었으나 자동차 및 고속도로 중심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는 '잊혀진 장소, 방치된 장소'로 머물러 있음
- 앞으로는 다시 고속철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서울역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관문, 통일 남북의 비즈니스 허브,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으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서울역 굴기' 기대
- 서울역의 미래비전은 서울의 관문도시, 'Gate City of Seoul'로서 글로벌, 남북, 유라시아의 비즈니스 관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강북의 GBC(Global Business Center)를 지향하는 동시에 서울 역사도심 내 부족한 비즈니스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주요 토론의견

- 서울역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해야 하며, 매장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상보다는 지하개발이 바람직함
- 광명에서 서울역까지 전용 KTX 직선 노선이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시설들을 모두 지하에 넣어 동서간 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함
-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문화재청, 서울시, 전문가 및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 미래비전 협의체 구성 필요

- 단편적 개발이 아닌 주변부가 지닌 잠재력을 고려한 통합적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 동-서 지역간 단절과 문화재를 잠식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롯데마트는 철거하거나 북부역세권 내로 이전해야함
- 서울역으로 인한 지역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서계동, 중림동, 남대문, 회현동 등 주변지역 재생이 미래비전의 큰 방향이 되어야함
- 서울역 북부와 용산역세권이 각각 개발되는 것이 아닌,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 질의응답

○ 질의1

- 조망권 회복, 수변공간의 확보, 한국만의 특색있는 공간조성 등을 고민해야 함

○ 답변

- 구릉지 활용과 서울역 지하화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만초천의 일부를 활용하여 수변공간 조성이 가능함. 특색있는 공간조성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통한 배후 거점 조성 방안과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해 구도심 특징을 살리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고민해 보겠음

○ 질의2

- 북부역세권 등 서울역 주변을 고밀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 필요

○ 답변

- 랜드마크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서울역 미래비전을 고민할 것

○ 질의3

- 서울역은 통일 후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고민과 구상이 필요함

○ 답변

- 금번 심포지엄과 별개로 통일 후를 고려한 다양한 구상과 고민들이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붙 임 : 1. 심포지엄 토론 전문 1부.

2.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

심포지엄 현장사진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인사말 〉



〈 제1발제 - 역사문화분야, 경기대 안창모교수 〉



〈 종합토론 〉



〈 질의응답 〉